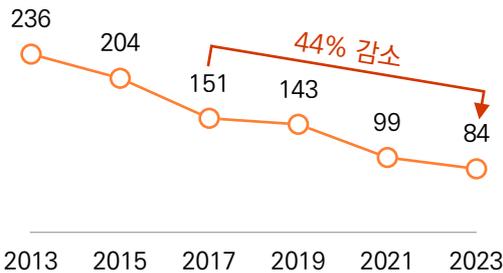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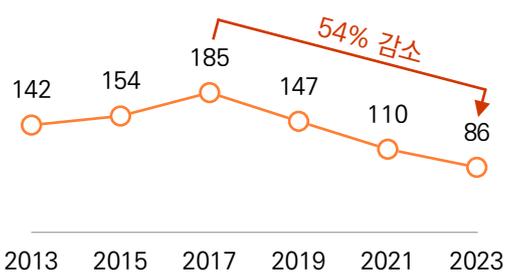
## [종교별 예비 성직자 감소 실태] 가톨릭 신규 성직자수, 지난 6년 사이 54% 감소!

- 탈종교화 등으로 출가자, 신부 등 종교인 감소가 이어지면서 종교계가 밑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. 대한불교조계종 자료에 따르면 불교 출가자(출가하여 수행하는 승려) 수는 2013년 236명에서 2017년 151명, 2023년은 84명으로 6년 사이 44%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가톨릭의 신규 성직자 역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‘한국 천주교회 사제 인명록’에 따르면 매년 사제품을 받는 사제 수는 2017년 185명에서 2021년 110명, 지난해 86명으로 떨어져 지난 6년 사이 54% 감소했다.

[그림] 불교 출가자 수 추이 (대한불교조계종, 명)



[그림] 가톨릭 새 사제 수 (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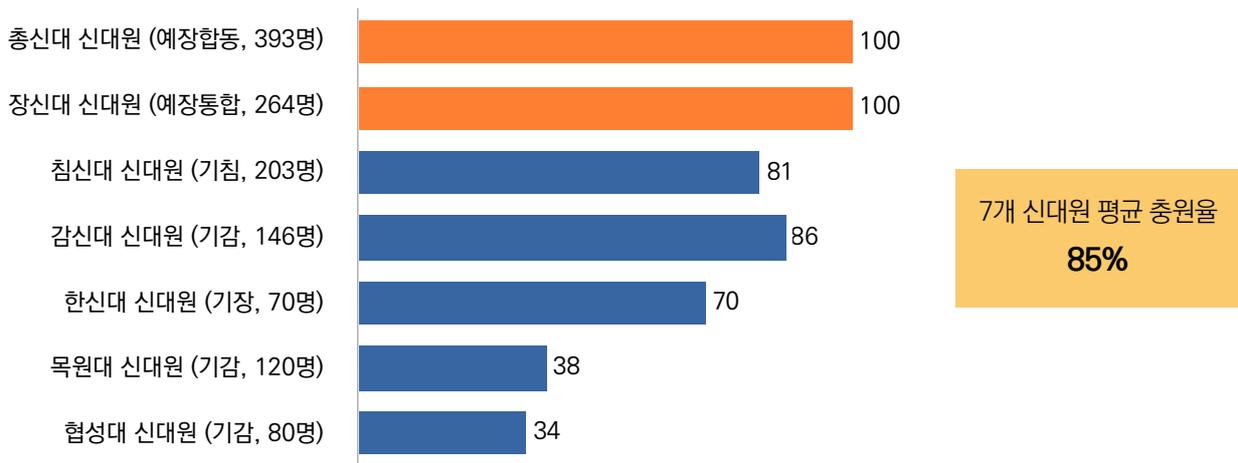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동아일보, “스님-신부님 급감, 외국서 모셔와야할 판” 고민 커진 종교계, 2024.11.29.  
(<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41129/130530770/2>)  
Note) 지난 연도별 수치는 ‘법보신문’과 ‘한국천주교주회의’ 보도자료를 참조함

## 2024년 한국교회 신학대학원 신입생 총원율 85%에 그쳐!

- 개신교의 예비성직자 실태는 어떠할까? 2024년도 개신교 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총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, 총신대와 장신대를 제외한 모든 신대원이 신입생 정원 미달로 조사됐다. 최근 몇 년 사이 신대원 정원을 감축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주요 교단 신대원 신입생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.

[그림] 한국교회 주요 교단 신학대학원 신입생 총원율 (2024년 기준, 정원수, %)



※출처 : 대학알리미, 신입생 총원 현황(대학원) 자료 참조, 2024.